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8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마라톤의 대명사’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48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올해도 전국 각지의 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줄임은 참가 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팀들의 참여동기와 결의 등을 소개한다.

‘민족 혼’ 떠올리면 뛰는게 더 즐겁다

광주달리기동호회

눈발이 날리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어린이교통공원 입구. 마라톤 복장의 남녀 20여명이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10여분 후 선두 주자의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간다. 장성군 진원면까지 왕복 32km를 목표로.

2000년 창단...정회원 100명

48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에 대비해 추운 휴일에도 많은 회원이 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함께 달리면 더 즐겁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광주달리기’는 기록 보다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위주로 운영해 가고

었다.

지난 2000년 첫 모임을 가진지 8년만에 정회원 100명, 온라인 회원 2천500명으로 구성된 광주지역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동호회이다. 신은석(47) 회장은 “이제는 회원 수 늘리기 보다는 가족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회원 중에는 부부 회원도 다섯쌍이나 된다. 특히 김기홍(52)·정신연(44) 부부는 50회 이상 풀코스를 완주한 베테랑 마라톤 부부다. 지난 2002년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한 이들 부부는 70세까지 손잡고 계속 달리는게 꿈이다. 또한 지금은 각종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로 활동하는 진정한 마라톤 마니아이기도 하다.

김성국(48)씨는 지난해 여름 622km 국토종단달리기(부산해운대~해남~임진각)를 완주, ‘광주달리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정지남(62)씨는 동호회 최고령으로 아직도 훈련에 빠지지 않고



광주달리기동호회는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대비, 11일 오전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출발, 장성 진원면까지 왕복 32km의 장거리 훈련을 실시했다. /위탁기자 jwji@kwangju.co.kr

매주 3차례 친목다지며 맹훈련

참석해 젊은 회원들과 함께 달리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신은석 회장도 풀코스 37회 완주기록을 갖고 있다. 6년전 체중 85kg으로 살빼기위해 운동을 시작, 지금은 57kg의 ‘건강남’으

로 변신했다.

‘광주달리기’는 기록으로도 어느 동호회에 뒤지지 않는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SUB-3’도 무려 13명. 이러한 결과는 꾸준한 동호회 훈련에서 비롯된다.

매주 3일씩 훈련하는 ‘광주달리기’는 수요일엔 월드컵 경기장 근처 산길을 달리는

‘SUB-3’ 주자만 무려 13명

‘언덕길 훈련’, 금요일엔 월드컵 보조경기장서 ‘스피드 훈련’ 그리고 일요일 왕복 32km의 ‘장거리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달리기 시합으로 기량과 친목을 동시에 다지기도 한다.

신 회장은 “광주의 대표적 마라톤 대회인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는 매년 참석하고 있다”면서 “이 대회를 통해 올해 회원들이 자신의 기량과 체력을 가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보다는 달리는 것이 즐거운 ‘광주달리기’의 이번 대회 선전을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앤서니 김·최경주 뒤집기?

<12연더 공동 4위> <11연더 8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3R 오길비 19연더 선두 질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09년 개막대회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은 제프 오길비(호주)의 독주로 끝날까?

제미교로 앤서니 김(24)과 ‘탱크’ 최경주(39·나이지리아)가 1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코스(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도 추격전을 펼쳤지만 선두 오길비를 따라잡지 못했다.

앤서니 김은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곁들여 사흘 동안 12언더파 207타를 찍어내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 등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바람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전날과는 전혀 다른 골프장이 됐지만 오길비는 보기없이 버디 8개를 쓸어담는 맹타를 휘두르며 중간합계 19언더파 200타로 변함없이 1위를 질주했다.

공동 4위에 오른 앤서니와 공동 2위 저스틴 레너드(미국), D.J 트래헌(미국·이상 13언더파 206타)이 추격했지만 최종라운드에서 뒤집기는 힘들어졌다. 앤서니는 전반에 버디 4개를 잡았지만 후반 들어 타수를 더 많이 풀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후반들어 파 행진을 계속하던 앤서니는 15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16번홀(파4)에서 3.6m짜리 파퍼트를 놓친 뒤 18번



<앤서니 김> <최경주>

홀(파5)에서 1타를 줄이며 3라운드를 마쳤다.

최경주는 버디 9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7언더파 66타를 쳤지만 중간합계 11언더파 208타로 단독 8위에 오르는데 만족해야 했다.

10번홀까지 버디 4개, 보기 1개로 시동을 건 최경주는 12번홀부터 15번홀까지 4개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선두권을 위협했다. 하지만 16번홀(파4)에서 1.2m짜리 파퍼트가 흠을 외면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최경주는 18번홀에서 까다로운 5m 내리막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려 아쉬움을 달렸다. /연합뉴스



훈련은 실전처럼 축구 국가대표팀이 11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시민축구장에서 정조국 선수(왼쪽)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女축구대표팀 새해 첫 승리

중 4개국 초청대회 핀란드 꺾어

‘여자 태극전사’들이 한국 축구의 새해 첫 승리를 장식했다.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10일 중국 광저우에서 치러진 2009 중국 4개국 초청대회 1차전에서 핀란드를 상대로 ‘간판 골키퍼’ 박희영(대교)이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앞세워 4-0으로 이겼다.

전반 37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박희영의 강력한 왼발슛으로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후반 7분 이은미(강원도립대)가 추가골을 터뜨려 승기를 잡았다.

한국은 후반 13분 박희영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또 한 번 핀란드의 골 그물을 흔들고, 후반 43분에는 고태화(충남 일화)가 마무리 골을 작렬시켜 4-0 승리를 완성했다. 한국은 12일 뉴질랜드와 대회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기지가 켜 허정무호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도전 축구대표팀 실전 훈련 돌입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새해 첫 훈련을 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일 오전 서귀포시 토광동 시민축구장에서 1시간 가장 훈련했다. 전날 소집돼 서귀포에 캠프를 차린 대표팀의 새해 첫 훈련이었다. 당장 다음 달 11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일단 2주간 서귀포에서 몸을 만든다.

서귀포시민축구장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준비할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대표팀이 구슬땀을 흘렸던 곳이다. 전날은 폭설이 내리고 기온도 많이 떨어졌지만, 대표팀의 첫 훈련은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서 이뤄졌다. 프로 구단이 동계훈련을 막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가운데 대표팀이 소집돼 이날 훈련은 가볍게 진행됐다. 23명의 태극 전사들은 러닝과 스트레칭과 볼 뺏기, 헤딩 등

으로 굳어 있던 몸을 풀었다. 훈련은 페널티지역 지점에 선수들이 죽 늘어선 뒤 차례로 슈팅을 날려 크로스바를 맞추는 것으로 끝이 났다. 골대 맞추기는 마지막 한 명의 선수가 남을 때까지 진행됐다. 광고포개도 끝까지 골대를 맞추지 못한 것은 ‘토종 골잡이’의 자존심 이근호(대구)였다. 허정무 감독은 첫 훈련 뒤 “팀에서 조금 훈련을 한 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다. 쉬다가 동계훈련을 하니 몸에 무리가 있는 선수들도 있다. 일단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연습경기가 없는 날은 시민축구장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씩 훈련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선수단 전원이 한라산 등반에 나선다.

15일에는 광운대, 16일에는 실업축구 고양 국민은행과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 송실대, 울산 현대와 연습경기 일정은 각각 하루씩 늦춰져 송실대와의 19일, 울산과의 21일, 23일 각각 경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내달 방향...유망주 육성안 제시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지휘했던 거스 히딩크(현 러시아 대표팀 감독)가 한국의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힘을 보탠다.

히딩크 축구센터가 들어서면 히딩크 감독이 총괄 감독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선진 축구 기술을 전수한다. 또 유럽축구연맹(UEFA) 1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유소년 총감독 등 전문 지도자들이 상주하면서 축구 교실에서 끝나지 않고 육성에 힘을 쏟는다.

한편 네덜란드 태생인 히딩크 감독은 자국 사령탑을 거쳐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을 사상 첫 4강에 올려놓았고 지난해에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8)에서 러시아의 8강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연합뉴스

히딩크, 한국에 축구센터 만든다

히딩크 감독은 이를 위해 다음 달 내한해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네덜란드에 세운 히딩크재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을 펴왔던 히딩크 감독은 지난해 7월 방한해 경기도 수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히딩크 드림필드’ 제3호 설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수원 삼성 차범근 감독

구단과 3년 재계약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차범근(56) 감독과 재계약을 확정했다.

수원은 11일 “차 감독과 3년 재계약에 합의했다”면서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수원 지휘봉을 잡은 차 감독은 이로써 2011년 말까지 수원 사령탑을 맡게 됐다.

수원은 부임 첫째 K-리그 챔피언을 이끌

었고 2008년 시즌에는 컵대회와 정규리그에서 ‘더블 우승’을 달성한 차 감독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해 일찌감치 재계약 방침을 세웠다.

수원은 “차 감독은 명실 공히 수원을 한국 최고의 구단으로 이끈 최고의 명장”이라면서 “차 감독과 함께 2009년 K-리그 정상을 유지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통해 아시아 최고 구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은 또 “차 감독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고려해 자진해서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구체적인 연봉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